

투데이 칼럼

대화는 인정하고 공감하라

대화는 생활의 필수이다. 대화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첫걸음인데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하는 것 또는 그 이야기 자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대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말지만 생존, 관점, 욕망의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피치의 영역에서 대화기법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률스님은 대화의 기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라.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남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나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감을 한 후에야 비로소 설득이든 협상이든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다.



김양욱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협상의 방법도 종류가 많은데 서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따로 떨어지든지 방법이 많지만 일단 결론을 내놓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다.

대화에서 이기는 방법에만 치중한 대화는 안된다. 무술에 이런 격언이 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에 불과할 뿐이다.” 대화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없는 대화의 기술은 어쩌면 말의 폭력으로 끝날 수 있기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인정으로 대화를 열어

야 한다는 점을 꼭 생각하고 대화를 하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공감을 잘하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중요한데 사람분석, 상황분석을 잘해서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말로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남성은 인정화법, 여성에게는 신경을 알아주는 말을 한다면 쉽게 공감한다.

세상을 살면서 대화방법을 터득하여 긍정의 대화로 가슴에 상처주는 대화를 삼가 할 때 내 편이 많아지고, 호감 받는 사람이 되어 인격자로 대접받을 것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대로 마구잡이로 해서는 큰 곤욕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혀, 이를 통해 말을 걸러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로는 천량 빛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말의 능력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지고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대화란 내 인생의 최고의 도구란 사실이다.

우리 인간은 생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역시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욕망을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대화의 중요성이 2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대외적으로 내 욕망을 투영하는 방법이 있다.

대화의 3원칙인 권위, 감정,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끝없이 대화의 기법을 연마할 때 욕망을 성취하고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장수하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대화력을 높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대화폭적인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 존경받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독자제언

다가오는 봄 농기계 사용 주의해야

경칩을 지나면서 온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완연한 봄이 다가왔다. 봄이 움에 따라 농촌 또한 농사일 준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우려되는 것이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이다. 농기계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5배 이상 높아 위험성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중에서도 특히 경운기는 트랙터나 관리기, 콤바인, 이앙기 등을 다루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경운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점검과 안전장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부나 기계장지에 묻은 흙과 먼지는 바로바로 깨끗이 씻어 주고 기름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농기계 이동 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어 놓아야 하며, 회전부에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끈이 달려 있거나 늘어져 있는 옷은 삼가해서 착용해야 할 것이다.

경운기는 안전사고와 함께 교통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비

탈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조차 미숙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 경운기의 방한전환이나 기어변속의 특성은 자동차와는 달리 다소의 힘과 기술이 필요하여 청장년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농촌지역은 나이든 노인들이 대다수이며 또한, 경운기를 운행하는 곳이 잘 정비된 도로가 아니라 도로폭이 좁은 농로나 산간지 도로로서 굴곡이 심하거나 경사가 심한 곳이 많다보니 도로를 이탈·전복되는 단독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본인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도로 운행 시에는 적재함 후미에 야광부착물 등을 부착하여 후방 진행 차량의 식별을 이롭게 하고, 도로 가장자리를 운행하는 등 스스로 조심하는 주의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봄에 시작되는 영농 준비는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간인 만큼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사고없는 농번기가 되길 기대한다.

박용근 남원경찰서 덕파출소 경위

독자제언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책동과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정도를 높혀 가고 있는 요즘 이를 지켜보는 탈북민들의 마음 역시 편하지 않은 양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사선을 넘나들며 자유 대한의 품으로 넘어온 적지 않은 탈북주민들의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남북 상황을 주시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해결을 학수고대 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 각 기관 단체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손길은 계속 되고 있다.

순창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부터는 관심을 갖고 탈북민에 대한 다양한 공감 프로그램을 마련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정성을 쏟고 있는데 담당 부서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 유지 속 대화 채널 가동에서부터 명절이면 보안협력위원회와 합동 마음이 깃든 선물 전달 행사, 생활에 어려움은 없

는 지 수시 대화를 통한 공유와 해법 제시로 불편한 제로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요즘 탈북민의 각 종 범죄로부터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강화 되고 있는데 전화금융사기를 비롯 국내 안전 정착 단계에 이르기 까지 예견 할 수 있는 신변 안전에 이르기까지 탈북민의 입장을 고려한 섬세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주민 역시 대한민국에 살면서 마음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해 주는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이란 반응이고 더욱 열심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최선을 다 해 살아갈 것이라던 전언이다.

우리 모두는 북한이 계속되는 단일한 정책으로 세계 속 파동림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탈북주민들에게는 동포애와 깊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다.

송대서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설

약속받은 몫 챙기는 열정 보여야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 약속받은 몫을 챙기는 데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말했던 바,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챙김에 있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앞으로는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지금 이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 어제의 사실에서도 지적했거니와 삼성과의 투자 협약 건이 백지화 돼서 말이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의 잘못이 크다. 전북도는 역척스러움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명박 정부와 삼성의 꿈수에 전북도가 춤추었다고 위로하기엔 서운함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전북 지역이 조금은 발전했구나 싶을 때,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다른 광역 지자체는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반대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전북도는 지역발전이 더딘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투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탓이 아니겠는가. 투자 유치물 위해서 전북도 관계자들은 열정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 말할 것이 있는데 투자 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홍보에 열을 올려선 안 된다. 그것은 나중에 무위로 돌아갔을 때 도민에게 실망을 줄 뿐이다. 삼성하고 맺은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무효화가 바로 그 본보기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알아야 한다. 나후도 서러운데 속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니 말이다.

전북도는 감해져야 한다. 약속받은 것은 반드시 챙기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쪽에서 소극적이니 결국 안될 것은 뻔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 몫을 챙기는 역척스러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일자리는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거둬 당부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약속받은 몫 챙기기에 열정을 보여야 한다.

새만금호 2020년 담수화 추진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020년 새만금 담수화를 위해서 전북도가 내년 제 협약 토론회를 가진 것이다. 그 모임은 매우 중요했다. 고 판단된다. 새만금호의 수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축 분뇨 문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실이지 익산 왕궁의 가축 분뇨 문제는 어제 오늘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새만금 담수화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게 있다.

지난해 늦가을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 녹색연합 등 2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거 말이다. 그때 새만금위원회가 실시하는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를 앞두고 기자 회견을 열고 말한 것이었다. '새만금 수질대책 실패 인정하고 해수유용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새만금 수질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정신이 사나워야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만금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지만 도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귀 시끄러운 정쟁만 들려주고 있으니 답답하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함없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 추진 속도가 미흡하기는 해도 어쨌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언급할 때마다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수질 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소하천의 수질 정화에는 그 해법이 제각각이니 말이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수 유통이 불가하다면 소하천의 수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동안 민경강 정화에 퍼부은 돈이 이미 오래 전에 물결 2조 4천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새만금의 수질은 여전히 6등급 수준이다.

새만금호의 수질 정화는 각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새만금의 담수화를 위해서는 민경강 하류 지역은 물론이고 소하천이 있는 상류 지역도 함께 나서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하천 관리에 소극적이면 새만금 유역의 정화는 말 그대로 백년하청이다. 오염물질은 내보내면서도 새만금호가 아무렇지도 않으리라고 기대한다면 말이 안 된다. 2020년 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새만금 담수화의 추진이 매우 바쁘게 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